

## I. 주간 경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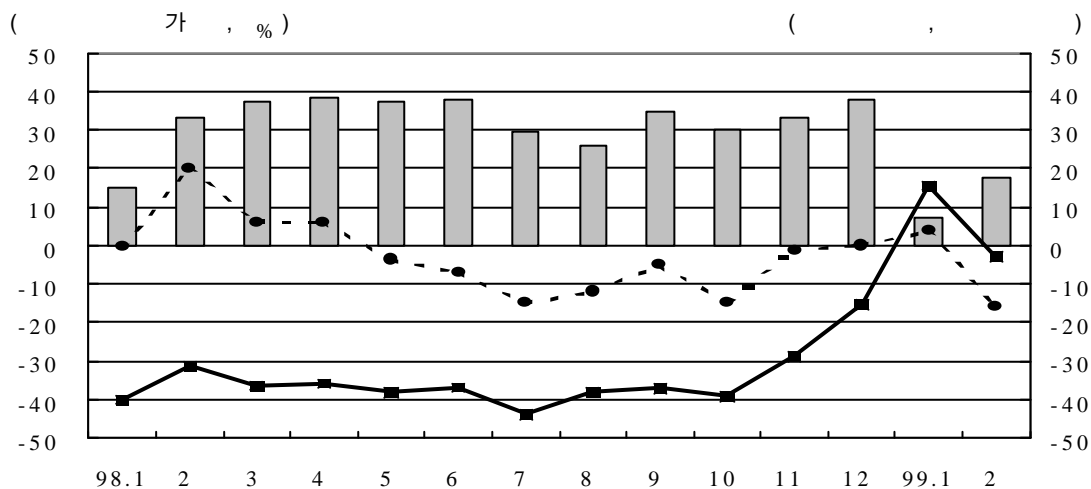
## 1. 경제 개관

## □ 2월 중 수출입 동향

2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6%나 감소, 이는 계절적 요인 및 특수 상황이 빚어낸 현상으로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님, 그러나 최근 국내외 수출 환경 및 전년 실적의 특수 요인을 감안할 경우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

- (동향) 2월 중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6.0% 감소, 1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
  - 99년 2월 중 수출은 94.3억 달러를 기록하여 98년 2월에 비해 16.0% 감소
  -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수입도 3.0% 감소한 76.5억 달러에 그쳤음
  - 무역수지는 1월의 7.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17.8억 달러를 기록

&lt;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&gt;



- (평가) 계절적 요인 및 특수 상황이 빚어낸 현상으로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님
  - 98년 2월에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수집된 금의 수출로 약 12억 달러, 급속한 경기 침체에 따른 유휴 설비 수출로 2.5억 달러 정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실질적인 수출은 97.7억 달러에 불과
  - 또한 99년 2월에는 설 연휴로 인한 수출 업무의 일시 중단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통관 일수가 3일이나 부족하였음

- 이들 요인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. 99년 2월 중 일일 평균 실질 수출 규모는 전년 동월보다 증가(4.3억 달러 → 4.7억 달러)

**<98년 2월과 99년 2월의 주요 수출 관련 지표 비교>**

	98년 2월	99년 2월
수출 총계(A)	112.2억 달러	93.4억 달러
특수요인에 의한 수출액		
수집 금 수출(B)	12.0억 달러	-
유휴 설비 수출(C)	2.5억 달러	-
실질 수출(A-B-C)	97.7억 달러	93.4억 달러
통관 일수(D)	22.8일	19.8일
일일 평균 실질 수출 규모((A-B-C)/D)	4.3억 달러	4.7억 달러

주: 통관 일수에서 토요일은 0.7일로 계산하였음

**- (전망) 최근 국내의 수출 환경 및 전년 실적의 특수 요인을 감안할 경우 수출이 당분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**

- 미국 경제가 예상외의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할 경우 원高, 아시아 경기 회복 지연,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, 수퍼301조 부활과 같은 통상 마찰 가능성 심화 등 대내외적 수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태임
- 또한 98년 3~4월 중 수출은 원화 환율 급등의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였으며, 금 수출 4억 달러, 유휴 설비 수출 5억 달러 등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상반기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로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
**<99년 수출입 전망>**

	1997	1998(추정)	1999(전망)		연간
			상반기	하반기	
경상수지	-86.2	400.4	124	119	243
수출입차	-84	395	134	129	263
수출(통관기준)	1,362	1,323.1	655	681	1,336
(증가율, %)	(5.3)	(-2.8)	(-2.4)	(4.4)	(1.0)
수입(통관기준)	1,446	932.8	521	552	1,073
(증가율, %)	(-3.8)	(-35.5)	(11.0)	(19.8)	(15.0)

주: 99년은 당 연구원 전망치임

**□ 금융지표 동향**

원/달러 환율은 엔화 가치 하락 및 원/100엔 환율을 1,000원대에 맞추려는 정책 당국의 달러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 지속, 회사채유동수익률은 금통위의 단기 금리 유지 방

침이 알려지면서 소폭 상승. 엔화 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가 바닥권 인식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선물 고평가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세의 유입에 따라 주가는 소폭 상승

#### - (외환시장) 원/달러 환율 상승세 지속

- 원/달러 환율이 엔/달러 환율의 추이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면서, 엔/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
- 특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/100엔 환율을 1,000원대에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정부의 달러화 매수 등의 영향으로 엔화 가치 하락이 그대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임
- 기업들의 월초 결제 수요도 원/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침
- 아직까지는 달러화 가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원/달러 환율 변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
- 원/달러 환율은 3월 6일 현재 1,242.0원을 기록

#### - (자금시장) 회사채수익률 소폭 상승

- (단기 금리) 장기 금리에 대한 전망 불투명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단기로 운용함으로써 하락세가 지속됨. 그러나 3월 중 통화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금통위가 콜 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추가 하락은 제약됨. 콜 금리(1일물)는 3월 6일 현재 5.08%를 기록
- (회사채유통수익률) 장단기 금리차 확대로 채권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한때 크게 하락함. 그러나 금통위가 단기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채권 매수세가 재차 약화되어 상승세로 반전됨. 3월 6일 현재 8.68%를 기록
- (국고채수익률) 지난주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3월 6일 현재 7.03%를 기록

#### - (주식시장) 주가 소폭 상승

- 주가 바닥권 인식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선물 고평가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세의 유입에 따라 주가가 소폭 상승. 반도체 빅딜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가한 것도 상승세를 뒷받침함
- 그러나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제약되어 3월 5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538.19 포인트를 기록

(동향분석팀 [ckche@hri.co.kr](mailto:ckche@hri.co.kr) ☎724-4031)